

우선 엉망진창 초고부터 쓰자

「사회과학자의 글쓰기」(하워드 베커 저, 이성용·이철우 옮김, 일신사, 1999)

재동은 집 짓는 사람이다. 여름 전까지 집을 지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길동은 즉시 마감(완공) 날짜부터 확인한 후 설계도를 만든다. 터 닦기, 주춧와 들보 설치, 단열, 배수, 배선 처리... 이렇게 시공 일정도 수립한다. 그리고 자재를 구입하고 일손을 모아 달력에 표시된 대로 집 꼴을 완성해간다. 공사 일정에 약간 차질이 있긴 했지만 설계와 시공 계획을 잘 세운 덕택에 비교적 수월하게 일을 마쳤다.

길동도 무엇인가를 지어야 한다. 집이 아니라 '글'을 짓는다. 정탁을 받고 마감일을 확인한다. "흠, 한 달이나 남았군." 무슨 주제로 어떻게 쓸지 슬슬 고민한다. 가끔 자료를 들여다보며 궁리를 하지만, 웬걸 실제로 글 짓는 일은 미루고 미루다 못해 마감 전 날 심장이 뛰어나올 듯한 초초함 속에 자판을 때린다. "으, 역시 나는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희한하다. 일단 써나가기 시작하자, 마감이 가하는 밀어내기의 힘 덕택인지 아슬아슬 제출 시간을 맞추었다. 마지막 몇 분, 하얗게 타오르는 무념무상 머릿속에 쉼 없이 준비되던 앤돌핀의 희열이란! "이 맛에 글 쓰는 모양이네. 맥주 한 잔?"

집을 지은 재동은 분명 뿌듯함을 느꼈겠지만, 길동이 마신 맥주는 과연 맛있었을까? 재동은 집을 지을 때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건축가로 성장하지만, 길동은 똑같은 과정을 밟기 일쑤다. 재동은 집 짓는 일이 점점 즐거워지지만, 길동은 (일필휘지라는 쑥스러운 칭찬을 가끔 받을지 모르나) 글쓰기가 고역이고 글을 보는 안목도 제자리걸음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다. 사실 '재동'과 '길동'은 글쓰기의 두 유형을 대표한다. 많은 글쓰기 책이 재동과 같은 유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려 한다. 글의 목적, 주제, 하위 주제, 주장과 근거를 정하고, 글의 구성을 짠 후, 문장 개요를 완성한다. 그리고 단락별로 다시 또 세부 개요를 작성한 후, 이를 다시 주제문과 뒷받침문, 부연문으로 확장한다. 빼대, 살붙이기, 피부 마감까지 차

● ● ●
차 익 종
서울대 기초교육원
글쓰기의 기초 강의교수



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을 거쳐 한 편의 빼어난 글이 탄생한다. 재동식 글쓰기 유형은 퇴고도 정서법이나 오타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학자나 작가, 기자 중에도 재동과 같은 유형이 얼마나 될까(나는 이제까지 딱 한 사람을 목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글을 쓸 때만큼은 길동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글도 일종의 건축물로 비유되는데, 글쓰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지천이거나 공짜라서 그럴까? 그렇지만 글쓰기에 소모되는 자원은 바로 우리의 시간과 생명력 아닌가! 집 짓는 재동이 완공 전날에야 허둥지둥 땅을 파는 모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글 짓는 길동은 그러기 태반이니, 땅값에 자재비를 합쳐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과 생명력을 그리 낭비할 수는 없다.

나도 처음에는 재동과 같은 유형을 권장했고 또 그리 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제자리걸음을 아무리 뜯어 고쳐도 결국은 쟁바퀴돌기로 끝나기 일쑤다. 이 고약한 악순환을 사이다처럼 시원히 끊어줄 해법이 하워드 베커의 「사회과학자의 글쓰기」에 담겨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가 ‘똥배짱’으로 개설한 대학원 글쓰기 강의의 교수자, 사회학 집필자, 학술지 편집자로서 좌충우돌하며 터득한 글쓰기의 방법과 원칙을 담고 있는 이야기보따리다.

글쓰기 책마다 좋은 글, 흥미로운 글을 쓰는 방법을 열심히 강의하지만, 솔직히 말해 정작 그 책들부터가 지루한 편이다. 역시 교재는 교재일 뿐인가. 이 책의 구성과 펼치는 교재와 거리가 멀다. ‘밑줄 찍’은 없다시피 하지만, ‘빵 터지는’ 일화가 간간이 튀어나온다(‘똥배짱’ 첫 강의를 담은 1장을 읽어보시라). 읽는 맛을 인정받는 글쓰기 책으로 「유혹하는 글쓰기」나 「문장」을 드는 사람도 있지만, 이 책들은 실제 방법론을 그리 많이 신지 않고 있어서 ‘읽는 맛’에 그친다고 나는 평한다. 반면에 「사회과학자들의 글쓰기」는 읽는 맛에 못지않게 글쓰기 방법론도 훌륭하다.

결코 길동이 될 수 없는 재동에게, 하워드 베커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한 가지 글에 매달려 매일 일정한 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하는 청교도적” 필자상을 버리라고 한다.

글쓰기와 관련하여 청교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하나의 가정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을 쓰지 않을 때조차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을 쓸 수 없다면 고통을 받아라.



하워드 베커는 이렇게 “빈 원고지를 놓고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측은한 저자”의 이미지를 벗어나자고 제안한다. 하긴 그렇다. 재동은 집 짓는 현장에서 그 일 한 가지만 하지만, 길동은 글 하나 짓는 것에만 매달릴 수 없다. 대체로 밥벌이 일이 따로 있고 집안 행사도 치러야 하며, 사람도 만나야 한다. 하물며 학기 중 서너 가지 과제가 한꺼번에 닥치며, 연애도 하고 바람도 쏘이어야 할 학생이라면 오죽하랴. 그러니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과 정력을 글 한 쪽에 쏟을 수 없음을 인정하자.

게다가 하워드 베커는 설사 그리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 고지적한다.

투자된 시간과 작품의 질을 동등히 여기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중략) 오히려 작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생각과 부적합한 수식어를 더욱 더 많이 끼워 넣을 수 있다. (중략) “더 많이 일할수록 좋다”는 “더 적게 일할수록 좋다”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

그의 대안은 글쓰기를 게임으로 여기자는 것이다. 어떤 게임? 계획에서 완성까지, 한 땀씩 퀘어가는 바느질 같은 것이 아니라, 영성한 아이디어와 불완전한 개요의 단계에서 곧바로 초고를 써버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고쳐나가는 퇴고의 단계에 글쓰기 활동의 중심을 두자고 한다. 일리가 있다. 미숙한 착상에 “물질적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즉 종이에(혹은 컴퓨터에) 써놓음으로써 생각이 깊어질 것이고, 일단 자리에 앉아 어떻게든 텍스트를 생산해 냅으로써 자존감도 북돋울 뿐 아니라 글쓰기 평계로 빈둥거리면서 쌓인 일거리도 해치울 수 있다.

글 고치는 과정에서 또 벽에 부딪힌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베커의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쉬운 것부터 하라. 즉 문장부터 고쳐본다. 둘째, 퇴고를 한 번에 완벽히 끝내려는 부담을 떨치고, 여러 번에 걸쳐 한다.

나는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간에 일부러 체제를 잡지 않고 거의 마구잡이로 초고를 쓴다. 그러한 경멸 받지 않은 생각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된 테마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초고에서는 어느 정도 논리적인 틀 하에 그러한 주제를 묶어나가는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초고에 이르러서야 단어들을 삭제하고 문장들을 합치고, 생각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는 생각을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내 원고는 그토록 엉망진창이



되고, 수없이 오려내고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원고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마지막으로, 정 안 되면 초고 상태에서 묵혀둔다. 그리고 다른 글쓰기로 옮긴다. 이렇게 해서 최대 8개 논문까지 동시에 썼다고 한다. 하워드 베커는 글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이다. “글쓰기는 단 한 번에 결정되는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투기가 아니”며, “글쓰기에는 단계가 있으며, 단계마다 적합한 기준들이 따로 있다.” 초기 단계는 아이디어에 형태를 부여하는 데 의미를 둘 뿐이며(“초고는 발견을 위한 것이지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명료하고 정교한 글은 후기 단계 즉 퇴고 때에 획득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쓰라는 일반적 생각과 구별” 되는 글쓰기인 셈이다. 자료 없이 먼저 초고를 써도 좋다고까지 한다.

훈련된 저술가라면 하워드 베커의 방법론에 야웃거리겠지만, 논문 8편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다니 효과는 분명하다. 그 출발은 글쓰기를 여러 단계로 구성된 활동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저자의 방법론을 해석하여, 글쓰기를 대체로 다섯 단계로 나눈다. ① 구상(주제와 목적 설계) 및 자료 수집 단계, ② 자료 분석 및 논의 정리 단계 ③ 초고 생산 단계 ④ 퇴고 단계 ⑤ 최종 완성 단계. 이렇게 최대 다섯 단계 혹은 넓게는 세 단계(설계 - 초고 - 퇴고)로 분절시키면 여덟 편까지는 못 되어도 세 편 혹은 최대 다섯 편의 글을 동시에 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응용하면 한 가지 글을 완성시키는 시간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 $1/2^n$ ’의 법칙이라 이름 붙였다. 우선 마감시간을 확인한 후 그때까지의 절반($1/2$)이 되는 시점에 (거칠고 엉망이라도) 초고를 써내고 잠시 숨을 고르며 다른 일을 처리한 후 퇴고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초고 탈고 시간 절반($1/2^2$) 시점 까지 글의 설계와 준비를 마친다. 물론 글 설계 단계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주제와 목적, 자료 목록 작성’ 까지 마칠 수도 있다($1/2^3$ 시점). 이런 식으로 글쓰기 활동을 조직하면, 확실히 글쓰기의 고역이 덜하며, 진척 속도도 올라간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실용적이다. 아메리카적 사무 처리 능력의 전형이랄까. 그렇다고 해서 하워드 베커가 단순히 기능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는 일탈사회학과 예술사회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거장이며, 미국의 대표적 사회학 학술지의 편집인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글쓰기 방법론이 혼자만의 시행착오로 급조된 것도 아니다. 그가 학부부터 박사 졸업까지 수학한 시카고 대학은 미국 글쓰기 교육 개혁의 선구적 역할을

한 곳인데, 그 역시 이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었다.

사실 이 책을 펼치면 글쓰기 방법론보다는 지식인과 글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성찰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 교수나 학생이 글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글에 대한 두려움 탓인데 그 두려움은 지식인다운 글이 못 된다는 평가를 염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식인다운 글이란 곧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엄숙하고 고상한, 지식인 체하는 언어로 가득 찬 글이다. “사회학자들은 두 개의 단어로도 충분한 것을 20여 개나 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엉망으로 쓰여진 글을 사회학이라고 말하는 농담까지 생겨났다.” 그래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나 그럴 듯하지만 모호하기 짝이 없는 글을 쓰는 것이 곧 대학이 요구하는 글쓰기라고 여기도록 학습된다는 반성이다.

그는 글쓰기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노동에 가깝다고 주장하는데, 이 대목에서 “지배자는 머리”, “피지배자는 손과 발”이라는 플라톤식 생각을 비판한다. 두뇌 노동과 손 노동의 분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물론 「사회과학자의 글쓰기」는 일차적으로 사회과학도를 위한 책이다. 그러나 글쓰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지식인에 대한 성찰,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론까지 갖추었다는 면에서 학습 노동, 교육 노동, 연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읽을거리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길동을 위한 한 가지 변명. 글쓰기는 건축과 다르다. ‘초별 건물’을 짓고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건축가를 기다리는 것은 실패뿐이다. 글쓰기는 설계 때에 든 완성 후에는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다. 허무는 습관이 더 약이다. 그래서 ‘마감시간을 확인한 후 마감 전날 쓰는’ 나의 길동들에게 이 책을 그냥 훑어보기라도 하자고 권한다.

(이 책은 현재 절판이 되어 도서관에만 몇 권 남았다. 혹시 출판사에서 재출간할 계획이 있으면, 젊은 세대에 맞게 번역을 약간 다듬어 내심이 어떤지.)